중바위산 이름 되찾기 서둘러야

전주 승암산, 가톨릭 순교자성지 기리는 치명자산으로만 표기

스님이 참선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중바위산으로 불리던 전주 승암산(僧巖山)이 가톨릭 유적지인 '천주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기리는 성지'라는 뜻의 치명자산(致命者山)으로만 표기돼 전북 불교계를 중심으로 산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수행승을 닮았다하여 불려진 전주 승암산에는 876년 창건한 승암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최근 도로표지판에서는 승암사가 있는 승암산을 가톨릭 순교 성지인 치명자산이라 표기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위쪽)전주시내 주요도로표지판에 치명자산성지만 표기돼 있다. 불교계에서는 치명자산성지와 승암산을 함께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립지리원의 자연지형명에는 승암산을 '중바우'로 표기하고 있다. 신라 헌강왕2년 (872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승암사, 동고사, 남고사 등의 고찰과 후백제 견훤이 축조한 동고산성, 견훤성터 등 유적이 남아있는 승암산을 전주시는 시내 도로표지판에 '치명자산성지'라고만 표기해 종교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승암사 주지 도광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승암사도 지방 유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성지라는 표현은 특정종교에만 국한된 표현임으로 승암산과 치명자산을 함께 병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도 2006년 한 지역일간지 칼럼에서 "전주를 비보하기 위해 스님들과 선각자들이 동서남북에 사찰을 창건하여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북고사를 있게 하였음에도 그 뜻과 유지를 받들기는커녕 본래 승암산, 중바위산으로 불리던 동고산 산 이름도 어느새 치명자산이라 슬그머니 바꿔 부르고 거리마다 도로 표시판에 새겨 본래의 승암산 이름조차 없애 버렸으니 어찌 전주를 예도라 할 것이며 조선의 풍패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등은 2006년부터 천주교 성지와 한옥마을, 오목대, 이목대, 전주천 등 관광명소를 결합해 국제적인 종교성지로 구축해 왔다. 한국순례문화연구원과 전북도는 5000억원을 들여 종교별 성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09년 10월 31일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기전에서 '아름다운 순례길'을 일반에 개방했다.

순례길은 전주와 완주, 익산에 있는 천주교·원불교·개신교·불교 등 4대 종교 성지를 연결한 것으로 180km에 이른다. 이 길에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익산시 금마면),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과 유춘옥씨는 "특정 종교 편향 의도는 없으며 각 종교 간 성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안내판에 표기하게 됐다"며 "각 종교 간의 유적을 함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 전주교구와 전북도관광협회 등은 최근 전주 천주교 성지들을 세계적 순례성지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2일 전주시는 전통문화센터에서 전북지역 종교유산의 창의적 관광활성화를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린이 명예경찰 템플라이프 화순 쌍봉사

어린이 명예경찰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에서 진행됐다.

쌍봉사는 4월 20일 화순어린이명예경찰 40여명을 초청, 템플라이프 행사를 개최했다.

화순만연초교, 제일초교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명예경찰 회원들은 이날 쌍봉사를 방문해 사찰체험, 불교문화제 알기, 단청그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영제 스님은 환영의 말을 통해 "명예경찰이 된 여러분은 누구보다 질서를 준수하고 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청그리기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 제11기 어린이 경찰단원은 매년 어린이 경찰관, 학교 지킴이 등으로 1년간 활동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산작법 시연회 광주 수덕사

광주 수덕사(주지 혜명)는 2년 여의 가사불사를 회향하고 광주 시민을 위한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수덕사는 4월 18일 경내에서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회장 혜령)회원들과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해 재가불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덕사 가사불사 회향식과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산스님의 축사와 시련의식, 신중작법, 가사점안과 이운, 천안함 희생자 위령 천도재, 가사불사 동참자 축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혜명 스님은 "가사불사 동참 공덕으로, 가정에 지혜로운 삶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진행한 가사불사는 초하루, 보름법회, 108 참회기도를 통해 불자들의 서원을 가사에 담아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호남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광주전남신도회장 취임 지용현 회장

"30년 절에 다니면서 호남불교계가 침체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호남불교 활성화에 보태겠습니다."

광주전남신도회장에 취임한 지용현 신도회장(사진)이 광주전남 신도들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제12대 회장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활성화를 화두로 열심히 뛸 것을 취임일성(就任一聲) 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4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통과 화합의 대법회'를 열고 12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성오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활성화를 위해 신도회 조직 구성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지용현 회장은 "그동안 신도회는 산하 조직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연합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별 신도조직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각 지역별, 사찰별 신도회 조직과 연석회의를 통해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불자의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각 사찰의 유치원, 어린이법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생 불자들의 현안에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선센터' 건립과 '불교테마공원'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은 한국불교의 근원지이자 많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100년 된 타 종교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며 "불교계의 힘을 모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금산사 홍보팀장 강만곤 (여름커뮤니케이션 대표)

"비움 뒤엔 마음의 평안을 채워야"

금산사 템플스테이에는 1년에 약 5000여 내·외국인이 참가한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에 단연 최고 인기다. 템플스테이 운영에는 실무자들의 숨은 노력이 없으면 운영 자체도 힘들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지금까지의 인기를 얻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강만곤(법명: 지덕·사진)금산사 홍보팀장이 피땀 흘린 결과다.

강 팀장이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휴학 중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만나 서울 영화사와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다. 청년회 활동을 통해 익힌 습의 덕에 군에 입대 이후 미숙한 군종병을 대신해 전역할 때까지 직접 집전했다. 전역 후에도 금산사에 적을 두고 청년회 활동은 물론 전주에서 청년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IT회사를 운영하는 중에도 그는 본업은 뒷전인 채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초창기 3년 동안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격주로 진행된 금산사 2박3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 모집, 진행에 뒷마무리까지 직접 관리했다.

금산사뿐 아니라 전국 주요 템플스테이에도 그의 열정이 숨어있다. 여름커뮤니케이션 기획 홍보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특히 산사체험 프로그램 기획 홍보에 빼어난 재능을 보여 프로그램 매니저로 2007년 부안 내소사의 '트래킹 템플스테이'를 개발했다. 또 백양사, 화엄사, 금산사의 주요 산사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담당을 하기도 했다. 영월 법흥사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컨설팅팀의 일원으로 템플스테이 정책과 브랜드 개발은 물론,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전의 기획을 맡았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강 대표는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논문제출만 남겨두고 있다.

2000년부터 서울에서 'KDI 정보통신'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할 때는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이나 성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의 홍보팀장이었던 그는 공생봉사단을 이끌며 매월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일손이 필요한 산중사찰을 찾아 칡넝쿨 제거, 시설물 보수, 땔감을 마련해주는 등 궂은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오는 5월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석탑과 석등을 위주로 한 보물급 불교문화재의 아름다운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전주영상회 소속 사진작가들과 함께 '제1회 불교문화유산 사진전'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사체험을 통해 비우고 가는 이들이 떠날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시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강만곤 팀장의 숨은 공로에 전국 템플스테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